

## 존경하는 우리 대학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께!!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식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여러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천원의 밥상'이라며 교내 식당에 대해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를 받기며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만이 시대흐름을 거꾸로 하며, 구성원 다수가 이용 중인 학생식당, 카페 등에 대해 외주화를 진행하려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주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며 외부 업체에 학생식당을 맡겨 운영하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나지 않자 그 피해를 구성원들에게 전가하여 식비를 인상하거나 아예 폐업하여 대학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화 진행이 맞는 것인가요?

### [외주화시 다양한 문제점]

첫째, 우리 대학 구성원의 복지를 외부업체에 맡김으로써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져 식비 인상으로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의 식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둘째, 외부 업체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쓰기 보다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저렴한 식자재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 제공되는 음식의 질, 그리고 지금처럼 자율 배식이 아닌 부족한 양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셋째, 외주화하게 되면 시설 개선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은 외부 업체에서 맡게 되어 우리 대학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익보장, 공과금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 하여 결국에는 우리 대학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넷째, 종전 교수회관 카페(레스타임) 외부업체 위탁 사례처럼 재계약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따른 행정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외주화가 단기적으로 우리 대학에 비용 절감 조치와 구성원들의 다양한 메뉴 선택권이 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외주화된 식당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 품질이나 서비스, 제공되는 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학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소비조합을 외주화한다고 해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복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대학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고, 재투자해야 우리의 복지가 나아집니다.

외주화한 공감 3호(도서관 카페), 공감 4호(교수회관 분식) 두 매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리 대학 구성원의 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닌 업체가 이익금으로 가져갑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만이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에 대해 학교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복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대학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학생식당, 카페(공감), 우체국 등의 외주화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외주화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추진 중인 외주화 반대에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한국교원대학교 소비조합 직원 -**